



## **필리핀의 종교와 의식**

Filipino Religion and Ritual

김동엽\*

Dong Yeob KIM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고난과 사망,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주간 행사가 다양한 의식과 함께 치러진다. 대표적인 것은 고행의식으로서 많은 마을에서 청년들이 얼굴을 가린 채 상체를 드러내고, 등에 상처를 낸 후 그 부위를 채찍으로 치면서 돌아다니는 의식이다. 이들은 고난주간 동안 성당의 벽에 걸려 있는 예수의 수난기(Passion of Christ)를 담은 사진들을 돌며 경배의식을 표하기도 하고, 또한 무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의 고난주간 행사를 치루기도 하는데, 주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 과정을 연극처럼 재현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즉 가시관을 만들어 쓰고 커다란 나무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거리를 행진하며, 로마병사의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채찍을 들고 호위하는 모습 등이다. 이들의 행렬 뒤에는 고행의식을 하는 마을청년들과 마을사람들이 길게 뒤따르는 모습을 연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

\* 청주대학교 교수, dongykim@cju.ac.kr



<그림 2>  
고행의식을 하고 있는 청년.  
출처: 필자사진.

에 대해서 필리핀 가톨릭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 대부분 묵인하고 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 행사’(crucifixion)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경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든다. 이러한 행사는 이미 필리핀 국내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해외에도 많이 알려짐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각종 노점상들이 늘어져 있으며, 가톨릭의 성인들의 형상이 새겨진 사진이나 목걸이(pendent), 그리고 십자가나 채찍 등 기념품을 판매한다. 한편에서는 폭염의 날씨를 피하기 위한 모자나 양산, 물과 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심지어는 맥주나 지역의 전통주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가족의 모습은 마치 소풍을 가



<그림 3>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출처: 필자사진.

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십자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심과 호기심에 가득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거리를 행진해서 도착한 십자가 행렬이 군중들 앞에 등장하고, 행렬과 함께 등장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돈다. 매년 이러한 십자가 행사로 유명한 팜팡가(Pampanga)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이 십자가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들 중에는 일본이나 호주에서 온 외국인들도 끼어 있다. 이들이 십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또한 공통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의미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고자 하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나 암과 같은 큰 병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써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큰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치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속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적 의미가 배경에 깔려있지만, 필리핀 토속적인 종교관과 연관된 주술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필리핀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6세기 중엽 마젤란이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 도착하여 그 곳 추장(Humabon)의 병든 아들을 치료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부족민 800명에게 집단으로 기독교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시작되었다. 마젤란은 이후 이웃 부족과의 갈등에 연루되어 살해당하지만, 그 후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필리핀은 남부의 일부 이슬람 지역과 북부의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그림 4>  
십자가에 못을 박는 모습.  
출처: 필자사진.

기독교화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전체 국민의 85% 가량이 가톨릭 신자로 남아 있다.

필리핀에서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수월하게 토착화되고, 또한 토속적인 신앙관과 접목되어 혼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존재하다. 우선 스페인 성직자들이 현지인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행태와 관련이 있다. 필리핀에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성직자들은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필리핀 군도가 단일한 언어와 전통, 그리고 믿음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여개가 넘는 개별부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기독교 전파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직자들은 원주민에게 스페인 언어를 보급하기 보다는 스스로 부족의 언어를 습득하여 그들의 언어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을 원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종 상징이나 연극과 같은 시각적인 기재를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원주민들의 정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그들의 토속적인 종교의식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성서의 내용을 전달했다. 스페인은 식민지 내 이슬람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력적 충돌을 통해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주민들에게는 외부세력, 특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부족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 하에 흠어져 살고 있는 부족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모아 마을(*pueblos*)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 원주민들로부터 경외심을 통한 종교적 신앙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회 건물이나 성직자의 의상들에 각종 장식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종교의식 등을 행하기도 했다.

외래의 기독교 신앙이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큰 무리 없이 전파되어 오랫동안 지속된 데는 이들의 토속적인 신앙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필리핀의 토속적 신앙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신앙체계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도 보편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독교에서의 유일신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창조의 주체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다. 이 ‘최고의 신’은 그 형상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구지 형상화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명칭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즉 *Bathala*, *Kabunian*, *Mansilatan*, *Makaptan*, *Laon*, *Lumauig*, *Mamarsua*, *Tuhan*, 등으로 불리어진다. 일반적으로 이 최고의 신은 일상적인 숭배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나 연례적 행사에 등장한다.

한편 일상적인 숭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들은 최고의 신에 의해 만들어진 하위의 신들이다. 이들도 지역에 따라 *Diwa*, *Diwata*, *Tuhan*, *Anito*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대상들은 필리핀의 토속신앙을 범신론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위의 신들 중에는 은혜를 베푸는 ‘선한 신’과 재앙을 가져오는 ‘악의 신’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악의 신도 적으로 보지 않고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들이 세상에 가져오는 재앙도 우주질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인간세계와 지하세계에는 선한 신과 악의 신 사이에 싸움이 존재하며, 인간들은 악의 신이 가져오는 재앙에 대항하기 위해 선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또한 악의 신을 달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선한 신과 악의 신 사이의 갈등에서 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곧 부족의 주술사이자 리더이다. 이들의 특별한 지위는 사람들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명성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된다.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경쟁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의식이나 치료행위를 행하였다. 많은 경우 이들은 부적(*ating-ating*)을 만들 수 있고, 이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악의 신의 시야에서 벗어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림 5>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모인  
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 출처: 필자사진.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관은 오늘날 고난주간의 행사 속에도 스며들어 나타난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많은 경우 십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통사회의 주술사들이 가진 명성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 성당주변이나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판매되는 가톨릭 성자(saint)들의 형상이 그려진 사진이나 목걸이 등은 토속신앙에서 악의 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필리핀의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인 토속신앙과 어우러져 특이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